

부처님 오신날 전례놀이로 기쁨 두배

부처님 오신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예로부터 초파일이면 불자들은 절에 가서 재(齋)를 올리고 등을 달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또한 이날은 종로 거리에 장난감 시장이 서는 등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문화가 펼쳐지는 명절의 하나이기도 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

▷호기 놀이

초파일이 가까워지면 민가에서는 집집마다 등을 달기 위한 장대한 '등간(燈竿)'을 세우는데, 그 끝에 꿩 깃털을 끼워 장식하고 물들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매단다. 이것을 호기(呼氣)라고 하며 기에 줄을 매고 가족의 수대로 등을 단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등간을 만들지 못하는 집에서는 나뭇가지나 추녀 끝에 빨래 줄처럼 줄을 매고 등을 매달아 두기도 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호기놀이는 아이들이 등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수주일 전부터 종이 줄을 잘라 등간에 매달고 집집마다 누비고 다니면서 썰이나 베를 얻는 풍속이었다.

▷연등 놀이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

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 장안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숯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 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탑돌이

탑돌이는 부처님 오신날이나 큰 법회, 재시 등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거나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스님이 앞서 탑을 돌면 불자들이 그 뒤를 따라 도는데 이때 등을 밝혀 들고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불도 놀이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만든 성불도 놀이는 사찰이나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이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주사위를 던져 나타난 글자에 따라

도판 위의 불배를 옮겨가는 이 놀이는 먼저 성불한 사람에게 다함께 삼배를 올린 후 살법을 듣고 먼저 성불한 사람은 그 판의 가장 낮은 사람의 편이 되어 함께 진행한다.

▷만석승 놀이

그림자극인 만석승(曼碩僧) 놀이는 초파일을 전후하여 절이나 근처 마을에서 행해졌다. 광목천으로 막을 치고 막 뒤에서 범종 소리에 맞추어 제등행렬이 지나가고, 분장한 십장생이 하나씩 나타났다. 여의주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 한 스님이 나타나 '운심계작법'이라는 춤을 춘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삶이란 좁고도 무상하다는 뜻을 지닌 바라춤이다. 결국 용, 잉어도 사라지고 스님의 바라춤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며 막이 내린다.

▷물장구 놀이

수부(水布)라고도 하는 물장구 놀이는 아이들이 등간 아래에서 물동이에 물을 담아 바가지로 얹어 띄워 놓고 돌아가며 빗자루로 두드려서 즐기는 놀이다. 이때 느티나무 잎으로 만든 느릅떡과 볶은 콩, 삶은 미나리 등을 먹었다고 한다. 또 짙은색 그늘 밑에 앉아서 꽃잎 한두 잎을 따서 준비해온 쌀가루와 섞어 전을 부친 화전을 먹기도 하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칠하기도 했다.

여수형 기자



소설가 남지성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정년뒤의 새 출발



한 신사분이 '60회 생일을 지내고 나니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 분은 대학교 때 친구를 따라 대법원 활동을 잠시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불교를 접했다고는 하지만 교리를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사찰수련회 등을 따라 다니면서 큰스님을 친견하고 절을 구경한 것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직하여 불교활동도 중단하고 직장생활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도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인생을 4주기로 나누었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는 학문을 수학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장해서는 가정을 이루어 부모와 처자식을 봉양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전념하다가, 자식이 성장해서 가정을 대신 이끌어 갈 정도가 되면 자식에게 가정을 맡기고 흠구분한 몸으로 집을 나와 여거지기를 떠돌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33세에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그는 아들 딸 남매를 낳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이 벌여 주는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갔기 때문에 결혼생활 30년 동안 큰 굴곡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모아 놓은 재산은 없지만 3억원 정도 되는 집이 한 채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하면 부자가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도 한 직장 수장으로 10여년 이상 지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 중의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서 부모 노릇도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자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한테나 형제들한테도 제 능력껏 해줄 수 있는 걸 해 줬으니 그들한테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

"황혼기의 수행길 힘차게 떠나세요"

수행에 전념하다, 때가 되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인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일에 전념했고, 성장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봉양하는 일에 전념했으니, 60대에 들어서 지금은 수행에 전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여의치 않아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분이 들려준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겠군요. 그 분은 서울 강남이 지금처럼 개발되기 이전에 강남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강남의 번모를 지켜 본 신 중인 중의 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님도 대부분의 강남 토박이가 그러했듯이 농사짓던 땅을 내주고 보상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다 날리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고향을 떠나서 학교를 마치고 은행에 취직해 두 동생의 학비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자신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한잔 제대로 먹어 보지 못하고 연애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30대를 맞았다고

지는 할 수 없었지만, 특별히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60대를 맞이한 지금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자다가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하다가 고대 인도인들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대, 나도 이제부터 나를 위한 수행의 길에 들어서자. 스승을 찾아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행센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수행도 해 보자.'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니 새로운 힘이 솟더군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행의 길에 들어서면, 아니 나를 흥분하게 놓아 달라고요. 제 통보를 받은 아내는 울고불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묻지 누워있습니다. 아씨가 하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질문을 받은 저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결심한대로 믿고 나가세요. 그러다보면 부인도 따라 올지 모르죠." 부인이 따라오면 안 오면 지금 그 분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행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60대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그 분에게 말합니다. 化緣 (02)704-3577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봄꽃 무생채

1. 무는 곱게 채른다. 비트는 강판에 갈아 면보에 내려 즙을 낸 후 채썬 무에 넣고 버무리며 물들인다.
2. 냉이꽃, 꽃다지, 유채꽃은 깨끗이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3. 무에 어느 정도 물이 들면 설탕, 소금, 식초를 넣고 살살 무쳐서 접시에 담고 꽃을 얹어낸다.
<재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무 400g, 비트 50g, 설탕 2큰술, 소금 1/2큰술, 식초 2큰술, 냉이꽃, 꽃다지, 유채꽃 약간씩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실버 건강팔찌

신경통, 만성피로 지압효과에 탁월

<동의보감>에는 은을 몸에 지니면 오장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된다고 기록돼 있다. '실버 건강팔찌'는 신경통이나 어깨결림, 만성피로를 자주 느끼는 사람에게 좋다. 또 팔찌 안쪽의 돌기는 지압 효과를 준다. 값 9만9천원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축하광고를 접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불기 2547년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 오신날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마감 - 불기 2547년 4월 29일 화요일까지
▶ 문의 및 접수 - 전 화 : 02)732-1522(직) / 02)737-8881(대)
팩 스 : 02)737-8881
e-mail : ad@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납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쪼들 염함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화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목재 다량사용된 유동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교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